# 아버지의 깃발 Flags of our Fathers

글 · **김봉석** 영화평론가/lotusid@naver.com

세상에는 영웅이 필요하다. 꼭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영웅만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혹은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작은 영웅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노점을 하면서도 기부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나 길에서 노약자를 돕는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영웅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때로 위화감 아니 역겨움까지도 안겨준다. 자신들의 부정이나 치부 등을 감추거나 호도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을 부각시키고 영웅을 추켜세우는 행위는 언제나 존재했던 일이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2차 대전 말, 태평양의 이오지마(유황도)란 섬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미국의 승리로 끝난 후, 이오지마의 산 정상에 성조기를 세우는 병사들의 사진이 미국인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사진은 모든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사진 속의 병사들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전쟁채권을 사라는 선전에 동원된다. 오랜 전쟁에 지쳐가던 미국인들은 이오지마 섬의 사진 한 장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동참했다. 그리고 미국과 연합군은 2차대전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아버지의 깃발〉은 이오지마의 영웅들, 산 위에 성조기를 세웠던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다. 사진에 찍힌 위생병 존 닥 브래들리, 인디언 출신의 아이라 헤이즈, 통신병 레니 개그논은 미국 전역을 돌며 영웅 대접을 받는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영웅놀이를 시작한 것이다. 세 병사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인다. 통신병 개그논은 기꺼이 영웅 노릇을 자임한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상황을 즐긴다. 아이라는 정반대다. 헤이즈는 전투 중에 죽어간 전우를 잊지 못한다. 어쩌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죽었을지도, 아니 자신이 조금만 더 배려했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 곳에서 죽은 전우들이라고 생각한다. 브래들리는 중립적이다.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충실한 군인이다.

순회를 하는 도중, 헤이즈는 점점 망가져 간다. 자책을 하고, 전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개그논을 비난하고, 결국은 술에 취해 행사를 망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영웅 만들기 자체가 이미 거짓이다. 이오지마의 영웅이 만들어진 것은,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 사실 사진 속의 깃발은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이다. 이미 깃발을 세웠지만, 선전거리가 필요했던 해병대가 세우는 광경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연출된 것이다. 게다가 사진 속

의 병사는 알려진 인물과 다르다. 세 명의 병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부에도 보고한다. 하지만 정부에게 그런 건 사소한 문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영웅뿐이다. 국민을 부추겨 전쟁채권을 사게 만든 영웅이 필요할 뿐, 그들이 누구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헤이즈와 개그논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영웅이란 건 단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질 뿐이다. 영웅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과장하고 광대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영웅 만들기의 비열한 과정을 조롱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저 관조할 뿐이다. 이스트우드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영웅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고뇌와 갈등이다. 세 명의 병사는 공통적으로 생각한다. 진정한 영웅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병사 하나 하나가 영웅이었고, 그들 없이는 어떤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세 명의 병사는 이미 영웅이었지만, 그들은 '국가의 영웅'을 부담스러워 한다. 전쟁이 끝난 후 각자의 길은 다르다. 개그논은 전쟁이 끝난 후 연락을 달라던 사업가나 정치인 등에게 연락을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개그논은 한때 영웅이었다는 사실만을 간직한 채,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헤이즈는 기만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은 객사하고 만다. 브래들리만이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아버지의 깃발〉은 브래들리의 아들이 이오지마섬의 병사들을 찾아 인터뷰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가 듣게 된 것은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부상을 무릅쓰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부상당한 병사를 내버려두지 않았던 위생병. 브래들리의 아들은 결국 알게 된다. 영웅은, 그들 모두였다는 것을. 평범하게, 전쟁에서 싸우다 죽어간 모든 병사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전쟁이란, 개인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오지마 섬으로 향하던 함선에서 까불던 병사 하나가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다. 병사들은 깔깔거리지만 곧 숙연해진다. 줄지어 가던 함선은 병사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사령부에서는 이오지마 섬의 폭격을 2주일에서 3일로 줄여버린다. 훨씬 많은 아군 희생자가 생기겠지만, 병사의 목숨보다는 전체적인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병사는 전쟁물자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치루는 것은 포탄이나 총알이 아니라 병사들이다. 병사들은 극한의 상황을 견디면서도 기계처럼 명령에만 따라야 한다. 전쟁에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수주의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이지만 그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조국은 사랑하지만 절대적 가치로 강요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깃발〉에서는 영웅을 조작하는 미국의 거짓을 담담하게 응시한다. 일본군의 시점에서 이오지마 전투를 찍은 연작 〈이오지마에서의 편지〉는 한 군인의 회상을 통해 말한다. 국가의 신념과 개인의 신념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군인이기 때문에, 같을 것이라고 그는 답한다. 하지만 막상 전쟁터에 투입된 그는 끊임없이 국가의 신념과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고 견뎌내야만 한다. 군인은 국가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을 〈이오지마에서의 편지〉는 보여준다.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의 편지〉 연작은 승자와 패자인 미군과 일본군의 시선을 통해 하나의 답을 이끌어낸다. 국가와 개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개인이라는 것을.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삶의 무수한 순간에서 택하는 주관적인 결정과 신념이라는 것을.